

# 커다란 풍선 속 담긴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

임현채 작가 '함께 가는 거야'展...28일까지 예술공간집

임현채 작가의 그림에선 따스한 옛 기억들이 피어오른다.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한 초록 대문엔 작가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손때 묻은 인형에는 애뜻한 감정이 묻어났다. 작품 '꿈 많던 시절' 속 요소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지만 경쾌한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섬세하고도 따뜻하게 풀어낸 임현채 작가의 초대전 '함께 가는 거야'가 오는 28일까지 예술공간집에서 열린다.



작품 '꿈 많던 시절' 앞에 선 임현채 작가.

전시에서는 풍선을 소재로 하거나 일상 속 사물을 담은 회화 등 신작 3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 속 풍선은 바람이 그득하게 채워진 상태가 아닌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자체로 포근한 느낌을 준다.

"풍선은 기본적으로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바람이 살짝 빠져나간 풍선이야말로 편안하면서도 어딘가에 내려앉기 적절해 보였어요."

자신보다 몇 배는 더 커보이는 풍선에 매달리거나 여기에 기대선 인형들에도 눈길이 간다. 머리 위로는 행운을 상징하는 세일클로버가 솟아나 있다.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이 담긴 옛 공간에서 작가가 간직한 보물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집터나 건물 옥상 등 '공간'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작가는 오래된 집들이 갖는 구조나 특징을 가져와 자신만의 결과물로 재창조해낸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나 넓은 해변 가운데 오래된 고목이 뒤엉켜 있는 모습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작가만의 이야기로 표현됐다.

"작업을 하다보면 그때의 기억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간에 새겨진 어떤 향수 같은 것들을 작품 속에 आरो새기는 거죠. 풍선을 잡아 끌거나 팽팡하게 늘어난 줄은 벽처럼하면서도 어딘가

## 일상 속 소중한 추억 담아낸 '꿈 많던 시절' 등 신작 30여점 선보여 "저마다의 보물같은 순간 떠올리며 내면 들여다보는 계기 되길"

에 기대고 있는 제 삶을 반영하기도 해요."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 사물을 통해 작가는 삶의 소중한 순간, 기쁘게 버티아가는 모습들을 담아낸다. 작가가 짙어진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이는 그만큼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들을 뽐내려는 게 작가의 이야기다.

"작품 속 이야기들은 제 일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보물 같은 순간들을 상기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전시를 기획한 문화영 예술공간집 관장은 "삶의 무게에 대해 고민하던 지점 그리고 작품 속 서로 다른 상징물들이 분리됐다가 서로 합쳐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임현채 작가의 작품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세심하면 서로 일상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작품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희망을 안겨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김진남작 'Mystery Island 5'

## 생명의 근원 '물'로 나타낸 원초적인 '감정의 편린들'

김진남 개인전, 아크갤러리

인간과 물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현대적인 수중 그림 전시가 마련됐다.

김진남 작가의 10번째 개인전 'Underwater Story'가 오는 31일까지 아크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작가는 갤러리 공간의 구조를 고려해 3개 섹션으로 작품 이미지를 구성했다.

첫 번째는 'Underwater Story' 시리즈로 물 속 실제인물과 물속에 존재하기 어려운 소재를 결합해 색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두 번째 섹션은 '트라우마' 시리즈다. 인간의 상처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 작품들이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사용 '인체의 오버랩'을 통한 표현방법을 연구한 작업들이다.

깊은 바다속을 배경으로 하는 작가의 작품은 너울춤을 추는 물결의 일렁임, 투영된 빛과 왜곡된 상들의 찰나적

아름다움, 고요한 불안과 신비로운 두려움, 자유로운 평안과 아이의 피부같은 촉감 등이 담겨져 있다.

작업에서의 물(水)은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바탕이자 존재의 근원을 은유한다. 이는 삶과 죽음처럼 대립하는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고 연결해주는 매개물질이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세계는 물의 신비로움과 두려움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연결해 표현하고 있다.

고현경 글작가는 "인간과 물의 연결 관계를 신비와 두려움이라는 심리로 접근하는 작가의 작품은 탄생과 죽음의 경계에 선 현대인들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며 "물을 모태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되짚고 심연 속 가라앉은 감정과 심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가는 우아하면서도 '정교한 파괴자'의 모습으로 작품을 고민하고 있다"고 평했다.

/최명진 기자

## 선선한 여름 밤, 명작을 만나는 시간

광주시립미술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 개장

여름 밤 미술관에서 명작들의 향기를 만끽해볼까.

광주시립미술관은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2024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 관람 시간을 2시간씩 연장, 오후 8시까지 개장한다.

이번 야간 개장은 시민들에게 선선한 여름 밤 삶의 여유와 낭만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야간 개장은 '2024 여름특별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요청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하고 색다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8월15일까지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 2024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 오디오 가이드를 무료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 "허브 재배하고, 배달하고"...양림동서 펼쳐지는 예술프로젝트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김자이 작가 '도시농부' 작업... 28일까지 참가 주민 모집

식재료 재료가 되는 허브 식물을 전시장에서 함께 재배하고 도보로 배달해보는 양림동 예술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품인 김자이 작가의 '휴식의 기술 Ver. 도시농부(Re-member)'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시장으로 활용될 양림동 커뮤니티

터센터에서 허브에 물을 주고 수확-재배하는 단계를 거쳐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카페 10년후그라운드(구 은성유치원)까지 배달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작업에 함께 하면서 탄소 배출과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 기간은 오는 8월11일부터 12월1

일까지이며,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내외로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20대부터 70대까지 양림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아카이브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고 운반하는 모습이 촬영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3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및



김자이 작가 '도시농부 프로젝트'

활동키트를 증정한다. 신청 등 문의 010-4772-7705. /최명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